

대학의 지역사회 참여와 그 한계*

- 2000년대 이후 교토 니시진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효진**

subculmania@gmail.com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2000년대 이후 대학개혁과 지역사회: 교토의 경우
- III. 대학과 사회와의 만남: 교마치야 재생운동의 사례
- IV. 대학참여의 실제: 사회와의 관점에서
- V. 맺으며

I. 들어가며

자율적 학문공동체로서 중세에 대학(university)이 성립한 이후, 대학은 외부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교수와 학생의 조합으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식의 생산을 담당해 왔다. 특히 근대 대학의 원형으로 간주되는 베를린대학의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훔볼트(Humboldt)는 "철학을 위시한 기반 학문이 대학의 중추가 되어야" 하고 "대학의 학문은 실용성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리고 대학에서의 학문의 발전은 대학구성원의 지적 정신적 성숙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가를 이루는 민족(국민)의 지적 정신적 성숙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¹⁾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등 전 세계적인 변동을 배경으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2-A00019)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HK조교수, 문화인류학

1) 고부웅(2012) 『근대 대학의 형성: 칸트의 이성의 대학에서 훔볼트의 학문의 자유 대학으로』 『비평과 이론』, 한국비평이론학회, 17권 2호, p.27.

로 이러한 전통적인 대학의 모습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월러스타인은 이를 크게 1) 신자유주의의 성장, 2) 예산감축, 3) 대학의 고등학교화, 4) 국가의 개입 강화²⁾라는 네 가지의 흐름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홀블트가 이상으로 삼았던 학문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상아탑으로서 대학에서 국가와 사회,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대학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의 맥락에서 이는 '대학전입시대(大学全入時代)'의 도래와 '국공립대학 독립행정법인화', '대학개혁실행플랜' 등, 일련의 대학개혁 정책을 통해 지역공헌과 사회공헌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런 대학이 소재한 지역공동체도 지방분권화의 흐름에 바탕하여 대학과의 협동을 통한 지역활성화(まちづくり)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기오카(杉岡)는 이를 1) (지역의) 자원으로서의 대학이자 2) 새로운 공공성을 담보하는 존재로서의 대학, 나아가 3) 지역공헌으로서의 대학이라는 세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다.³⁾

그러나 대학의 지역참여는 그 맥락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지역사회가 대학을 지역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연계와 협동을 시도하는 경우⁴⁾도 있지만, 재정지원과 학생유치를 둘러싸고 격화되는 대학 간의 경쟁 속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지역사회 참여를 전략적으로 시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본 논문에서 다룰 교토는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사회의 역사적·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대학의 지역사회 참여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하다.⁵⁾

특히 교토의 사례가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 생산의 거점으로서 대학이 스스로의 권위를 포기하고 지역사회와 역사와 문화 등 토착지식(local knowledge)을 학습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학과

2) Immanuel Wallerstein(2008)『대학의 어제와 오늘, 내일』『대동문화연구』 6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53.

3) 杉岡秀紀(2007)『大学と地域の地学連携によるまちづくりの一考察』『同志社政策科学研究』9(1), pp.77-78.

4) 야마가타(山形)대학의 경우, 지역상점가가 침체된 결과 상점가의 요청으로 지역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伊藤宣生(2007)『まちづくり(中心市街地活性化)の研究と今後の課題について』『山形大学紀要』第38巻第1号를 참고하라.

5)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상술하겠다.

지역의 협력에서 지역사회가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런 모습은 대학과 지역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토라는 지역이 갖는 브랜드성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이거나 대학의 이익을 위해 지역사회를 동원하는데 머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 바탕하여 본 논문은 중세 대학의 성립 이후 사회적 맥락에서 독립적인 학문의 탐구를 그 목적으로 했던 근대의 대학상에 바탕하여 발전해온 일본의 대학이 2000년대 이후 점차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자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로 대학이 지역 사회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상황과 한계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교토, 특히 교마치야(京町家) 재생운동의 사례를 통해 논하고자 한다.

교마치야 재생운동은 대학교수 등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민가인 교마치야를 재평가하고 토착지식을 발굴하는 작업에서 시작되었고, 현재도 교마치야의 문화적 가치로 인해 대학 및 연구자의 지역사회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자는 교토의 니시진(西陣)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현지조사를 진행했으며(2003년~2005년 및 2006, 2009, 2011년), 이 과정에서 교마치야 재생을 중심으로 한 대학들의 지역참여를 실제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교마치야 재생운동은 대학의 지역참여라는 이상과 실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실천 간의 간극을 살펴보는 데 적절한 사례였다.

II. 2000년대 이후 대학개혁과 지역사회: 교토의 경우

1. 2000년대 이후 일본정부의 대학개혁 정책

한용진에 따르면 “1990년대 이래 일본고등교육개혁의 흐름은 대학이 사회와 격리된 상아탑의 이상보다는 대중화 보편화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 참여적이고 개혁 선도적인 지식생산지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⁶⁾으며, 이때 사회참여적

6) 한용진(2003) 『일본 고등교육의 개혁동향』 『비교교육연구』 제 13권 1호, 한국비교교육학회, p.124.

인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에 바로 기존의 산관학 협동을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포함된다. 특히 국립대학의 독립법인화 및 사립대학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는 대학들 간의 자유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런 경쟁이 더욱 격화된 원인은 다름 아닌 급격한 소자화에 의한 학생인구의 감소이다.

2012년 6월, 문부과학성은 <대학개혁실행플랜: 사회변혁의 엔진이 되는 대학 만들기>를 발표하여 앞으로 5년 동안 대학개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⁷⁾ 그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소자고령화의 진행과 지역커뮤니티의 쇠퇴, 글로벌화에 의한 보더리스화, 신흥국의 대두에 의한 경쟁격화라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동일본대지진이라는 국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사회의 변혁을 담당할 인재육성, 지적기반의 형성과 이노베이션의 창출 등, '지(知)의 거점'으로서 대학을 정의하고 이를 크게 1.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대학기능의 재구축, 2. 대학 거버넌스의 충실·강화라는 두 방향에서 접근한다. 여기서 대학기능의 재구축에는 네 가지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1) 대학교육의 질적 전환·대학입시 개혁, 2) 글로벌화에 대응한 인재육성, 3) 지역재생의 핵이 되는 대학 만들기(center of community) 구상의 추진, 4) 연구력 강화(세계적인 연구 성과와 이노베이션의 창출)로 분류된다.

이 네 가지 방법론 중 본 논문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은 세 번째인 '지역재생의 핵이 되는 대학만들기 구상의 추진'이다. 다른 내용은 일반적으로 대학의 기능으로 간주되는 인재육성 및 지식탐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지역재생의 핵'으로서 대학을 본격적으로 위치지운 것은 이번 실행플랜이 최초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책 차원에서 지역활성화에 있어 대학의 역할이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1년 도야마 플랜(遠山プラン) 당시에도 대학개혁의 목표로 '세계최고 수준의 대학 만들기', '인재대국의 창조'와 함께 '도시, 지역의 재생'⁸⁾

7) http://www.mext.go.jp/b_menu/houdou/24/06/1321798.htm, 2013년 12월 27일 접속.

8) 김필동(2006) 『일본대학의 산학협력 및 지역공헌활동—최근의 대학 정책변화와 관련하여』, pp.30-33.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도시, 지역과 일체화된 대학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1. 대학과 도시 기능을 일체화한 21세기형 산업, 두뇌 거점도시의 정비, 2. 대학을 핵으로 한 자치체 주도의 지적센터의 전국적 전개 (대학, 기업, NPO등의 요구에 부응), 3. 자치체로부터 지역의 대학으로의 협력을 가능하게끔 새로운 국가, 지방 협력관계의 수립이 주된 내용이다.

'이 제시되었고, 2004년부터 시행된 '현대적 교육니즈 지원프로그램(現代的教育ニーズ取組支援プログラム、現代GP:Good Practice)'에서도 총 여섯 분야 중 두 분야(지역활성화 공헌(지역밀착형) 및 지역활성화 공헌(광역전개형))가 대학의 지역활성화 참여를 장려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문부과학성의 정책과는 별개로, 2005년 총리실산하 도시재생본부가 '대학과 지역의 연계에 의한 도시재생의 추진'을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결정하는 등⁹⁾ 지역활성화에 있어 대학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2000년대 이후 지속되는 흐름이었다.

그러나 이런 흐름 속에서도 2012년 발표된 대학개혁실행플랜이 획기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대학의 역할을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대학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2012년 플랜에서는 지역사회의 핵심적 요소이자 자원으로서 대학을 정의하고 지역사회의 현실적 요구에 대학이 직접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지역사회에서 NPO, NGO 등 정부와 지역주민 이외의 다양한 참여주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무대를 형성하는 중심인 동시에 지식거점(Center of Excellence, COE)의 핵으로서 중요성이 증대"¹⁰⁾되었기 때문이다.

2. '대학의 도시' 교토의 특성

수도인 도쿄 다음으로 대학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교토는 단기대학까지 포함하면 2013년 현재 총 49개의 대학이 있으며¹¹⁾ 일본에서 인구당 대학 비율이 가장 높다. 따라서 소자화에 의한 학생인구의 감소는 교토의 대학뿐만이 아니라 교토의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도시(大学のまち)'로 불릴 만큼 지역 인구에 비해 대학의 수가 많다는 교토의 특성에서

9) 김철영(2013) 『대학과 지역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향에 관한 연구- 일본의 대학과 지역이 연계하는 마을 만들기 추진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권 5호, 한국도시설계학회, p.71

10) 손승호(2007) 『일본의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쉽과 도시재활성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0권 2호, 한국도시지리학회, pp.105~117

11) 이는 교토지역 대학의 연합체인 '대학콘소시엄 교토(大学コンソーシアム京都)'에 2013년 현재 참가하고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한 숫자이다.

기인한다.¹²⁾ 과거에는 교토의 문화적인 수준을 대변하는 지표로 여겨졌던 인구 당 대학 비율은 이른바 '대학전입시대(全入時代)'가 도래한 상황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본 전통문화와 역사의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토를 동경한 나머지 다른 지방 출신입에도 교토에 있는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여전히 적지 않지만¹³⁾ 소자화의 흐름을 바꾸어 놓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도쿄에 비해 지방 출신 학생들의 유인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교토에 위치한 대학들로서는 교토 및 인근지역 출신 학생들을 보다 많이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구제국대학(帝國大學)의 하나로서 여전히 도쿄대에 버금가는 명문대로 인식되는 교토대(京都大)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대를 중심으로 보다 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토의 사립대학들이 내세운 전략이 바로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이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참가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있어 대학의 입지를 공고히 다질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장래 신입생이 될 세대 및 그들의 부모들에게 자신들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홍보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교토는 그 역사 및 문화적 중요성으로 인해 지역의 문화적 자원이 풍부하게 남아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유효한 학생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것은 지역에 대한 젊은 세대의 무관심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이 상징하는 젊은 세대가 고령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활기를 잃은 지역사회에 참가하여 대학생은 대학의 교육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한 학습기회를 얻을 수 있고, 지역 사회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노동력 제공을 이용하여 정제된 지역 내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다는 이해 관계의 일치에서 기인한다.¹⁴⁾

12) 교토 사람들 스스로가 자부하듯이 '학생에게 친절한 도시'인 교토의 명성은 대학생 인구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13) 교토학원대 교마치야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소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교토 외부 출신 학생이 단지 교마치야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토학원대를 선택했다는 언급이 나온다. 이는 실제 연구자가 교토에서 현지조사를 하는 동안 만났던 교토 외부 출신 학생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반응이기도 하다. 『御池中学校の生徒さんたちが訪問』, <http://machiyacampus.net/wp/?p=1523>, 2013년 12월 30일 접속.

14) 예를 들면 이토와 오모리(2001)가 연구한 홋카이도의 니시오카 HOP-NET의 사례는 인터넷

교토시에 소재한 대학 간의 협의체인 재단법인 <대학콘소시엄 교토(大学コンソーシアム京都)>가 1990년대 일본에서 최초로 만들어져 현재까지 교토학생제전(京都学生祭典) 등 지역에 기반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토 대학들이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보다 민감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¹⁵⁾

또한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대학개혁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이런 대학들의 노력을 뒷받침했다. 2003년부터 교토시에서는 『대학의 거리 두근두근 교토추진계획(大学のまち・わくわく京都推進計画)』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가쿠마치코라보- 대학지역연계모델 창조지원사업(学まちコラボ(大学地域連携創造・支援事業))’을 대학콘소시엄 교토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대학·단기대학 중에서 대학과 지역이 하나가 된 ‘지역활성화’와 ‘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모집하여 선정한 후 지원금을 교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업은 2004년 시작 당시 9개 대학, 16개 프로젝트가 응모한 결과 2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고, 가장 최근인 2013년의 경우 16건의 프로젝트가 지원결정, 1건이 장려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¹⁶⁾

한 건당 10만-30만에 정도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이 프로젝트에 선정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의 경우 지역문화제의 계획과 개최, 교토지역커뮤니티 역사와 문화 조사, 근대화유산지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교토시

을 이용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도로 컴퓨터 및 인터넷에 능한 대학생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보 유통 및 활성화를 꾀한 노력의 하나로, 바로 이런 사회적인 기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伊藤裕之・大森義行 (2001)『大学を中心とした地域コミュニティの構築：西岡Hop-Netの試み』『産研論集』24、札幌大学、pp.47-54

15) 이는 최근 정부로부터 지원에 경쟁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그 외의 유력한 외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또한 독립하되 고립되지는 않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를 통해 대학은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송선영(2007)『일본의 대학지원정책 동향 연구』『교육발전연구』 제 23권 제 2호, 경희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 p.26.

16) 선정 기준으로 교토시에서는 단체, 그룹으로서 대학, 학생과 지역주민이 연계, 협동하여 실시하는 사업 (특히 학생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개별 구의 기본계획에 내세운 시책과 조치와 관련된 것) 2)선진성이 있어 다른 지역의 모델로서도 응용, 전개가 기대되거나 지속한 결과 지역활성화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것을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2004년 시작 당시에는 대학부서, 연구실, 학생 서클, 세미나 등 대학의 단체에 한정되었던 참가신청 자격을 지역 주민단체에도 주고 있으며 기존의 실적은 묻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대학과 지역의 협동을 장려하는 교토시 행정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전역을 대상으로 기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이 사업에 선정된 사례들이 실제 대학의 지역 참여 중에 극히 일부임을 생각해 본다면 교토는 가히 전 시내 지역에서 대학과 지역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대학의 지역사회 참여에서 첨단을 걷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3월에 대학콘소시엄 교토에서 발행한 <지역과 대학연계의 케이스 스터디>라는 홍보책자에 실린 다음의 인용문은 2000년대 이후 교토에서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역과 대학의 연계추진은 지역과 도시의 지역활성화에 있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대학측으로부터는 대학개혁, 대학창조의 대처에 있어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과 대학의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봤을 경우 몇 개의 선진적인 사례가 보고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지방도시에 있어 1개의 대학으로부터 몇 개의 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처 사례의 소개이다.

교토지역에는 수많은 역사와 특색을 지닌 50개의 대학·단기대학이 집적하고 있으며, 또 역사와 전통과 산업이 균형있게 공존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유수의 <대학의 거리>임과 동시에, <관광도시> <문화도시>이다. 2007년도 <대학의 마치 교토추진회의>에서는 <학생의 거리 및 지역연계추진 시스템의 구축>을 주요한 추진과제로 두고, 대학과 지역의 연계가 <대학의 거리 교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례연구를 행했다. 여기에 소개하는 교토의 지역과 대학연계의 사례가 앞으로의 지역활성화, 대학창조의 참고가 된다면 기쁘겠다.¹⁸⁾

특히 이런 대학과 지역의 연계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많은 지역 및 신주민이 유입되어 기존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는 지역에 젊은이들을 공급하며, 대학생들에게는 교토문화에 직접 접하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사회학습 등)한다는 명분 아래 환영받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전통적인 공동체의 변화로 인한 기온마츠리(祇園祭)의 위기

17)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라. 【終了しました】平成25年度『学まちコラボ事業』認定式を開催します! http://www.consortium.or.jp/contents_detail.php?co=cat&frmId=2615&frmCd=52-1-1-0-0, 2013년 12월 30일 접속.

18) 大学のまち京都推進委員会編(2008)『地域と大学連携のケーススタディ』大学コンソーシアム京都、p.1

를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해결했던 전례에서도 드러나듯이, 특히 많은 대학생들이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학습의 기회를 통해 일본 문화의 정수인 ‘교토문화’를 배우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교토의 특징이다.

Ⅲ. 대학의 지역사회 참여: 교마치야 재생운동의 사례

그렇다면 본 논문에서 대학에 의한 지역사회 참여 사례로 다루고자 하는 교마치야(京町家) 재생운동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교마치야 재생운동이란 교토 도심 내부에 지어진 서민을 위한 전통목조건축, 즉 교토의 마치야를 보존, 재생하여 재활용하자는 운동이다. 1990년대 초반에 교토 도심부에 연이어 행해진 고층 건축물의 건설은 전후 교토가 ‘고도(古都)’로서 도시 전체가 관광의 대상이 되는 과정과 맞물려 교토의 매력을 파괴하는 행위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 고층빌딩의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경관논쟁(景観論争)을 배경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점차 교토시 전역의 경관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¹⁹⁾

이런 사태를 초래한 행정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던 상황에서 교마치야 재생운동의 첫 시민단체로 1993년 발족한 <교마치야재생연구회(京町家再生研究会)>는 그 창설 멤버 중 다수가 교토지역의 대학교수 및 연구자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이 연구회에 참가했던 몇몇 교수를 중심으로 교토시에 소재한 유명사립대인 리츠메이칸(立命館) 대학의 한 연구실에서 소규모의 교마치야 실태조사가 행해졌다. 1997년 설립된 교토시의 제 3섹터 <교토 경관 지역활성화 센터(京都地域・まちづくりセンター)>에서 첫 사업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시행했던 최초의 교마치야 실태조사는 이를 기반으로 실행된 것이다. 이 교마치야 실태조사는 현재도 리츠메이칸대의 전면적인 협력 하에서 정기적으로

19) 이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김효진(2010) 『1990년대 이후 교마치야재생운동의 명암:니시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3집 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pp.129~172를 참조하라.

실시되어 교토시의 교마치야 보존 및 재생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로서 활용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교마치야 재생운동이 교토시의 경관문제 뿐만이 아니라 관광 산업과의 관련 및 지역 이미지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위에서 살펴본 교마치야 재생운동의 사례처럼 행정과 대학이 연계하는 경우 외에도, 각각의 지역사회에 찾아와 교마치야의 재생 및 보존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재생된 교마치야가 관광산업으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런 흐름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²⁰⁾

또한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대학이 직접 교마치야를 임대하거나 매수하여 이를 캠퍼스로 활용하는 흐름이 두드러진다. 2006년 교토대(京都大) 대학원 정보학연구과와 도시샤대(同志社大) 대학원 종합정책과학연구과가 각각 교토도심부에 소재한 교마치야를 임대하여 각각 한 학기 및 3년 동안 강의 및 지역 사회의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에는 교토가쿠인대(京都学院大学)가 ‘교마치야캠퍼스’를 도심부에 개설하였고, 도시샤대에서도 같은 해 대학의 외부캠퍼스로서 교마치야를 역시 임대하여 ‘마치야 서클(町家サークル)’ 소속의 학생들이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교토가쿠인대는 인간문화학부의 실제 교육커리큘럼과 교마치야캠퍼스를 연계하여 매년 학생들이 기온마쓰리에 실제로 참여, 봉사하는 ‘교토 펠드워크’ 강좌 및 ‘도심커뮤니티연구’ 강좌를 개설하는 등, 교토문화를 학습하는 공간으로서 교마치야캠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²¹⁾ 이와 더불어 교토도심부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류고쿠대(龍谷大)가 교토시의 지원 하에 후시미(伏見)에 오래된 교마치야를 매입하여 ‘후카구사 교마치야캠퍼스’를 개설하는 등, 교마치야를 교육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목적에서 대학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20) 연구자 역시 그런 사례 중의 하나였으며, 연구자가 조사한 지역에서도 졸업논문의 주제로 교마치야의 재생 및 보존을 택하여 정보를 얻으려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두명씩은 꼭 찾아올 정도로 교마치야 재생운동은 대학에서도 인기있는 연구 대상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21) <http://www.kyotogakuen.ac.jp/outline/campus-introduction/other-campuses/machiya-campus/index.html>, 2013년 12월 27일 접속.

표 1. 대학이나 학과 차원에서 교마치야에 캠퍼스를 개설한 사례²²⁾

개설시기	대학명	캠퍼스명/ 위치
2006.5	도시샤대 대학원종합정책과학연구과	江湖館 (中京区)
2006.4	교토대 대학원 정보학연구과	없음 (中京区)
2007.12	류고쿠대 사회학부	竜谷大学町屋キャンパス竜竜(ロンロン)(大津市)
2008.3	도시샤대	でまち家 (中京区)
2008.4	교토가쿠인대 인간문화학부	新柳居 (中京区)
2010.	교토공예섬유대학 등 4개대학 연합	ににぎ (中京区)
2013.4	류고쿠대	深草町家キャンパス(伏見区)

이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개설된 류고쿠대의 후카구사 마치야캠퍼스는 대학 본부에서 이 캠퍼스의 개설에 대해 교토시청의 교마치야 재생운동과 연관성 뿐만 아니라, 문부과학성의 2012년 대학개혁실행플랜에서 제시한 ‘지역재생의 핵이 되는 대학만들기 구상의 추진’을 앞장서서 실행하는 것²³⁾이라고 위치지우고 있다. 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마치야를 활용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개혁의 방향성과도 합치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마치야캠퍼스는 단순히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교토문화로 대표되는 일본문화와 지역공동체문화를 학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교토가쿠인대학의 교마치야캠퍼스 소개페이지에서는 “일본인이자 천년의 수도, 교토에서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의 기분은 과거도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소개하면서, “교토 생활과의 만남을 통해” 일본을 배운다는 점을 강조하여, 교토가 일본문화의 대표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다는 점이 강조된다.²⁴⁾ 교마치야 캠퍼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도 학생들이 지역 주민의 지도 하에 기온마쓰리에 참가하거나 캠퍼스로 사용되는 교마치야를 개보수하고 기온마쓰리 참가를 위해 유카

22) 1년 이상의 장기임대가 아니라 강연회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마치야를 이용한 사례는 그 수가 너무 많아 제외하였다.

23) <http://www.ryukoku.ac.jp/news/detail.php?id=4575>, 2013년 12월 28일 접속.

24) 『京町家キャンパスの可能性』http://www.kyotogakuen.ac.jp/~o_human/History/MACHIYA_Campus.php, 2013년 12월 30일 접속

타(浴衣) 입는 법을 배우는 모습 등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학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토문화를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를 홍보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대학의 교마치야 활용에 대해 매스미디어는 전반적으로 호의적이다. 예를 들어 요미우리(読売)신문 2008년 4월 6일자에서는 <마치야가 캠퍼스 교토가쿠인과 도시샤, 두 대학이 개설>이라는 기사에서 “학생이 교토의 문화에 접하고 주민과 교류함으로써 사회성을 익히게” 하는 시설로 교마치야캠퍼스를 소개하고 각각의 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다. 같은 신문의 2009년 1월 27일 기사에서는 교토공예섬유대의 니니기 교마치야 캠퍼스를 소개하면서 “가장 지역에 녹아들어난 대학”으로 “교마치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유효한 방법으로 교마치야 캠퍼스를 평가하고 있다.

IV. 대학참여의 실제: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교마치야 활용 및 재생운동의 참여는 대학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교토에서 대학의 주요한 차별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는 매스미디어의 호의적인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교토의 경우, 일본 정부의 대학개혁안이나 일반적인 대학과 지역의 파트너십 연구에서 정의되듯이, 지역의 'COE[지식거점, Center of Excellence)]로서 대학이 파트너십의 형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식창조의 거점', 즉 '지역의 지식창조거점의 핵'으로서 역할을 기본으로 지역발전에 공헌²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사회가 대학에서 배우지 못하는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성격지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의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교토의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에서 기인하는 것²⁶⁾으로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일견 지역사회

25) 손승호, 같은 논문 p.110.

26) 고도(古都)로서 교토 이미지가 고정화되고 점차 일본의 전통과 역사를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변모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김효진(2008) 『민가에서 문화유산으로: 교마치야 재생운동을 통해 본 교토이미지의 변화』 『일본연구』 3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p.39~66을 참조하라.

의 주도하에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의 지역사회 참여뿐만 아니라 소위 '교토문화'를 학습 및 연구하기 위해 교토의 다양한 지역에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앞서서도 소개한 교토가쿠인대의 블로그 등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들은 비록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은 아니지만 점점 더 젊은 세대의 참여가 줄어들고 있는 교토의 지역공동체에서 행하는 다양한 행사들- 기온마쓰리 등의 전통적 행사 및 상점가 활성화 등-에 참여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안내나 물품 판매 등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²⁷⁾ 앞서 소개한 교마치야캠퍼스는 이런 활동의 주요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런 캠퍼스가 없는 지역에서도 대학의 수업 등에서 이들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벤트 등에 참여하고 이를 졸업논문이나 기말보고서 등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학콘소시엄 교토에서 시행하는 '가쿠마치코라보' 사업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참여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가를 연구자의 현지조사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2003년부터 개최된 니시진(西陣)의 긴카가쓰지 전통문화제(金貨ヶ辻伝統文化祭)는 죠나이카이(町内会)와는 별개의 유지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행정 및 시민단체 등의 외부 지원 없이 개최하였음²⁸⁾에도 불구하고 한때 5000여명 이상을 동원하는 등 지역의 소규모 신흥축제로서 놀라운 성공을 거둔 사례이다.

이 이벤트는 니시진오리(西陣織)를 필두로 한 전통섬유산업의 쇠퇴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에 대응하여 지역 내에 산재하는 교마치야를 이벤트 당일에 개방하고 기모노관련 상품을 할인 판매하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목적 하에 시행된 것이었다. 당초 지역 내에 위치한 전통섬유산업 관련 회사를 중심으로 기획된 이 이벤트는 이후 2000년을 전후하여 교마치야를 재생하여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에 유입된 소수의 교마치야 거주자를 포괄한 약 20명 정도의

27) 「7/1 祇園祭奉仕のために浴衣の着付けを練習しました」 <http://machiycampus.net/wp/?p=1394>, 2013년 12월 30일 접속.

28) 2003년 개최된 이후 독립적으로 이벤트가 개최되어 왔지만, 2011년부터 교토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참가자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지역참여라는 관점에서 이 전통문화제가 흥미로운 이유는 제 1회의 성공 이후 근방의 여러 대학들- 편의상 A대, B대, C대로 부름²⁹⁾-을 비롯하여 그 외 대학 소속의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 조사 및 이벤트 지원을 지속적으로 행했다는 점이다. 특히 A대의 사례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살펴보는데 있어 흥미로운 몇 가지 논점을 제공한다.

과거 이 지역에 대한 대학의 관심은 주로 전통섬유산업의 중심지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구조 및 특성에 대한 것이 많았고 이 지역이 학술적인 연구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해 주민들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전공에 따라 이 지역을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대부분이었다면³⁰⁾ 2000년대 중반 긴카가쓰지 전통문화제에 참여하거나 지역에 관심을 갖고 접근한 대학은 교마치야 재생운동을 중심으로 교마치야에 대한 이 지역의 토착 지식(local knowledge)이나 긴카가쓰지 전통문화제라는 명칭이 내포하는 전통문화의 아우라(aura)를 연구뿐만이 아닌 학습의 대상으로 삼았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A대학의 사례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A대학이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한 2004년부터 2007년의 기간 동안, 대학의 사회학 세미나 전체가 한 학기에서 일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역을 방문하여 주요 전통문화제 참가자를 인터뷰하고, 전통문화제 당일에는 이벤트 안내 및 보조요원, 동영상 촬영 등 활동을 기록하는 등의 활동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는 이 지역의 전통산업 관계자와 향토사학자, 그리고 전통문화제의 사무국장으로부터 니시진과 교마치야 재생의 현황에 대해 강연을 듣는 기회도 마련되어 이 기간 동안 A대학의 존재감은 지역에서 강하게 부각되었다. 전통문화제 사무국 또한 적은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이지 안정적으로 축제에 참가해줄 젊은 일손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그 결과 A대학의 참가는 전통문화제에 있어

29) 연구대상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인류학적 현지조사의 관습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실제 지역명과 대학명대신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

30) 전통산업과의 연관성 위에서 경제학 논문이나 노동 관계 관련 논문, 혹은 역사학 논문이 확인된다.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³¹⁾

그러나 A대학의 참여는 어디까지나 사회학 수업의 일환이었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통문화제에 전면적으로 협력한 이후에는 전통문화제의 자원봉사 활동 외에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지역주민과 접촉하는 일은 줄어들었다. 이는 수업과 연계한 대학의 지역사회 참여에서 흔히 나타나는 양상으로 특정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매년 학생들에게 제공할 새로운 연구테마를 발굴하는 것은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긴카가쓰지 전통문화제는 기온마쓰리와 같이 정통성을 인정받는 전통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역활성화를 위해 새로이 시작된 신흥지역축제로서 교토 중심부와는 달리 '교토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A대학은 이 지역에 교마치야를 구입하여 이를 캠퍼스로 활용하여 이 지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일시적으로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한정된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결정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대학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결국 무산되었다. 이는 A대학 뿐만 아니라 이후 이 지역과 연계를 시도했던 B대학에서도 나타나는 양상으로 수업이나 연구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가 실제로 지역커뮤니티와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게 지역사회 참여라는 명분을 부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특히 긴카가쓰지 전통문화제에서 대학의 참여를 둘러싼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갈등은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1) 전통문화제를 보는 시각과 입장의 차이, 2) 지역 사회 내부의 액세스 편중으로 인한 내부의 갈등, 3) 지역의 특성과 동떨어진 이벤트의 제안 및 재정적 문제 등이 그것이다.

우선 1) 전통문화제를 보는 시각과 입장의 차이란, 전통문화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와 대학 간에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준비위원회가 긴카가쓰지 전통문화제를 개최한 목적은 지속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기모노산업의 홍보 및 경제적 효과의 창출에 있

31) 2003년 전통문화제가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이벤트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대학은 A대학 뿐만이 아니었다. 그 지역을 조사하는 대신 긴카가쓰지 전통문화제에 볼런티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이 그 시작이었다.

있던 데 반해, 대학의 경우 사회실습 수업의 일환으로 교마치야 재생운동의 성공 사례라는 관점에서 전통문화제에 협력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1990년대의 경관논쟁 이후, 교토시 차원에서 교마치야의 보존과 재생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대학의 공익적이자 문화적 관심과 대비되어 지역주민들이 이기적이고 비문화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동시에 대학의 교마치야 보존 및 재생에 대한 관심, 즉 교마치야의 보존 및 재생에 대한 '토착 지식(local knowledge)'에 대한 관심은 교마치야에 거주하지 않는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 자신들의 일상과는 떨어져 있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었다.

특히 2)와 관련해서 최근 교마치야를 보존, 재생했다는 이유로 대학이나 연구자가 특정 주민에게 주목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지역주민은 이 상황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전통문화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전통산업 종사자들인데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 요구나 실제적인 필요성으로 인해 교마치야를 없애고 그 자리에 사무실용 빌딩을 지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마치야의 보존과 재생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중시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은 지역주민이지만 연구의 대상으로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또한 교마치야가 점차 교토의 민중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부각되고 교마치야 재생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수의 대학이 이 지역과 연계하기 위해 경쟁하게 되었고 전통문화제 또한 그런 경쟁의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면 개최 첫해에는 B대학의 학생이 개인적으로 졸업논문을 쓰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일했던데 비해, 2004년부터는 준비위원회의 사무국장과 개인적인 관계에 바탕하여 A대학이 지속적으로 참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개인적인 관계가 사라지고 원래 계획되었던 교마치야 매수계획이 없어지면서 2009년에는 C대학의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는 등, 이 지역을 둘러싸고 몇 개 대학이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때 지역과의 연계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개인적인 관계에 바탕하게 되는데³²⁾, 이로 인해 지역사회 내부에서 특

32) A대학은 참여 당시 사무국장의 아들이 그 대학의 사회학부 대학원에 재학중이었으며 B대학은 지역에서 오래된 원사(原系) 회사의 중역이 그 대학 출신이었다. A대학과 B대학은 교토

정 대학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3) 지역의 특성과는 동떨어진 이벤트의 제안은 대학의 공익적 성격에서 기인한다. 대학의 경우 특별한 재정적 도움을 지역에 줄 수 없을뿐더러 대학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학술적인 차원의 협력을 그 본질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 긴카가쓰지 마쓰리에 A대학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교마치야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협력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관심이 없을 뿐더러 학술적인 접근에 대해 거리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대학이라는 기관의 특성상 재정적인 지원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온 기모노도매상이 부도가 나면서, 그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교마치야의 처분을 둘러싸고 최초에는 A대학이 적극적으로 매수 의사를 밝혔지만 시간이 지체되었을 뿐 매수는 결국 무산되었다. 그 외에도 2000년대 중반 이후 3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이 지역의 대표적인 기모노 도매회사가 사옥을 축소 이전하고 몇 개 기모노 회사가 부도가 났으며, 근방의 은행지점이 결국 다른 지역 지점에 통폐합되는 등, 이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슈가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은 교마치야 보존 및 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 지역에 접근함으로써 많은 지역 주민들이 위화감을 느끼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리하자면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시도로 긴카가쓰지 전통문화제는 기획되었고, 이에 주목한 많은 대학들이 이 지역에 참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전통문화제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봉사자들(학생)을 제공하고 이 지역에 대한 연구와 학습을 강조함으로써 전통문화제의 성공과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는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이 과정은 다양한 문제점과 모순을 수반하였다.

이 지역에 대한 연구와 학습을 강조하고 학생들이 이 지역과 교토문화를 학습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대학이 중시하는 특정한 목적

에서 오래된 라이벌 대학으로 이 지역과의 연계를 둘러싸고 경쟁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공익적이고 문화적인-에 부합할 때에 한정되며, 지식 생산을 둘러싼 대학의 권위는 여전히 유지된다. 대학의 지역참여가 보다 평등한 대학과 지역주민의 관계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앞에서 살펴본 교마치야 캠퍼스 또는 지역이벤트의 참가는 다른 대학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것이 지식 생산에 있어 대학과 지역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간극을 잘 보여주는 것이 대학의 지역참여에 대한 교토시민의 태도 변화이다. 2003년 <대학의 거리 가슴 뛰는 교토추진계획(大学のまち・わくわく京都推進計画)>을 시행한 이래, 교토시는 대학의 지역참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³³⁾ 교토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설문조사 결과 중 가장 최초인 2003년과 가장 최근의 2013년의 조사 내용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관찰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통해 살펴보자.

표 2. 대학의 거리 교토 설문조사 결과 비교 (2003년과 2013년)

대학(또는 연구자)에게 바라는 교류 형태		〈대학의 거리 교토〉 추진시 기대하는 방향성	
2003년	2013년	2003년	2013년
대학시설의 이용(49.1%)	대학시설의 개방(54.6%)	대학과 지역의 연계강화(47.3%)	학생의 취업지원 (47.5%)
시민강좌 등 참가(44.7%)	시민이 참가 가능한 이벤트 개최 (51.8%)	매력있는 학생의 거리로서 교토의 충실화 (41.3%)	교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39%)
지역활성화 활동과 연계, 협력 (27.2%)	지역과제 해결을 위해 학생, 교직원 협력 (43.3%)/ 지역활동에 적극적 참가 (43.2%)	산학공(山学公) 연계강화(40.0%)	지역과제, 활성화를 위한 대학-지역 연계 체제 확립 (27.8%)

우선 '대학(또는 연구자)와 어떠한 교류(연계)를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2003년 조사에서 '지역활성화 활동 등에서 연계, 협력, 상담'이 27.2%에 머무른데 비해 2013년에는 관련 두 개 항목이 43% 이상의 응답을 얻었다. 이는

33) 이는 도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교토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대학과 지역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대학의 지역참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 외국인을 포함한 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앙케이트 조사이다.

현재 교토시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과 지역간의 연계 강화가 10년전에 비해 교토시민들의 의식 속에서도 중요하다고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 대학의 거리 교토를 추진할 때 기대하는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살펴보면 흥미로운 경향이 발견된다. 사업 추진 초기인 2003년에는 대학과 지역의 연계강화에 가장 많이 찬성했는데 비해 2013년에는 이 방향이 3위로 떨어지면서 비율도 3할 이상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경제적 부분, 즉 취업문제와 산학협력이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1) 10년의 기간 동안 취업이나 산업진흥 등 경제적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 즉 교토 지역경제의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과 2) 2003년에 비해 시민들이 느끼는 대학과 지역의 연계를 추진하는 정책적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이다.³⁴⁾ 특히 2)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첫 번째 항목에서 나타난 대학의 지역참여에 대한 기대와 함께 봤을 때, 10년의 기간 동안 대학의 지역참여가 증가한 결과 정책적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10년 동안 추진된 '대학의 거리 교토'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교토의 지역산업 부흥 등의 경제적 요구에 비해 대학의 지역참여는 부차적인 요소로 간주되며 실제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

대학의 지역참여에 대한 교토시민의 모순적인 태도 또한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젊은 세대의 지역사회 참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는 대학의 협력을 통해 이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교토의 브랜드성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대학에게도 유효한 전략이다. 첫 번째 문항에서 대학과 지역의 협력에 대해 지역의 문제나 행사 등에 학생과 연구자가 참가하기를 기대하는 비율이 10년전에 비해 늘어난 것은 이런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문항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바라는 것

34) 모든 질문에 복수회답이 가능함에도 비율이 3할 이상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시민이 체감하는 대학과 지역의 연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제적인 부분이라는 점은 긴카가쓰지 지역에서 일어난 대학과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맥을 같이 한다. 대학의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역의 재활성화이며 이는 경제적인 목적이 핵심이다. 그러나 대학은 지식거점으로서 공익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지역의 경제적 잇점과는 모순될 때가 적지 않다. 환원하자면 실질적인 차원에서 대학의 지역참여는 환영받고 있으나 대학의 지역참여를 통해 지식 생산의 위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대학과 지역주민간의 괴리를 통해 드러난다.

V. 맺으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의 지역 참여는 다양한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그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으로 인해 지역과 밀착한 학습과 연구,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교육이 대학에 의한 지역참여의 주요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는 교토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 이런 지역에 기반한 교육이 강조되고 대학과 연구자가 지역에 참여한다고 해도 이를 통해 획득되는 지식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요소로서 이것이 대학과 지역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즉, 명분상으로는 교토문화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대학 스스로가 이를 학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은 지역을 연구대상이나 관련된 사례를 제공하는 장소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가 많다.

한편, 교토문화를 지키고 배워야 한다는 당위성에 기대어 지역공동체는 전통행사의 진행 등에서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의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에 산재한 대학의 대학생, 연구자들을 포섭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교토의 지역에 따라서도 그 양상이 다른데, 교마치야가 교토시 전역에 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마치야 캠퍼스는 교토중심부에 밀집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토시 내부에서도 그 '중심성'과 '정통성'에 따

라 위계가 발생한다는 점 또한 지적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주요한 사례로 다루고 있는 긴카가쓰지 전통문화제의 경우, 지역이 지닌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신흥지역축제라는 의미에서 기온마쓰리 등과 비교했을 때 '교토문화'로서 인정받기 어렵고, 축제의 정체성은 지역문화 자체라기 보다는 교마치야 재생의 사례로서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들은 구체적인 활동이나 지역 참여 시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과의 연계에서 교마치야 재생이라는 관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긴카가쓰지 전통문화제의 사례에서 일견 대학과 지역사회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IV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사회에서 배우고 이에 기여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지식 생산에 있어 대학과 지역주민의 관계는 여전히 고착화되고 지역참여는 경쟁하는 대학간의 차별화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그치고 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사회에서도 대학의 지역참여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 살펴본 교토의 사례는 그에 참여하는 대학간의 위계와 지역의 특수성 및 정체성에 따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부의 대학개혁 정책이 '지역재생의 핵'으로서 대학의 위상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과의 위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학의 철저한 노력이 따르지 않는 한, 이는 IV에서 소개한 교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지역재생의 핵으로서의 대학이라는 장밋빛 미래와는 달리 결국 학생 취업에 대한 노력이나 산학공협력 등의 실용적 제후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부웅(2012) 『근대 대학의 형성: 칸트의 이성의 대학에서 훔볼트의 학문의 자유 대학으로』 『비평과 이론』, 한국비평이론학회, 17권 2호, p.27.
- 김철영(2013) 『대학과 지역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향에 관한 연구- 일본의 대학과 지역이 연계하는 마을 만들기 추진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권 5호, 한국도시설계학회, p.71
- 김필동(2006) 『일본대학의 산학협력 및 지역공헌활동- 최근의 대학 정책변화와 관련하여』 『사회과학연구』 17집,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30-33
- 김효진(2008) 『민가에서 문화유산으로: 교마치야 재생운동을 통해 본 교토이미지의 변화』 『일본연구』 3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p.39~66
- _____(2010) 『1990년대 이후 교마치야재생운동의 명암:니시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3집 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pp.129~172
- 손승호(2007) 『일본의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쉽과 도시재활성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 10권 2호, 한국도시지리학회, pp.105~117
- 송선영(2007) 『일본의 대학지원정책 동향연구』 『교육발전연구』 제 23권 제 2호, 경희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 p.26.
- 한용진(2003) 『일본 고등교육의 개혁동향』 『비교교육연구』 제 13권 1호, 한국비교교육학회, p.124.
- Immanuel Wallerstein(2008) 『대학의 어제와 오늘, 내일』 『대동문화연구』 6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53.
- 伊藤宣生(2007) 『まちづくり(中心市街地活性化)の研究と今後の課題について』 『山形大学紀要』 第38巻第1号, 山形大学.
- 伊藤裕之・大森義行(2001) 『大学を中心とした地域コミュニティの構築: 西岡Hop-Netの試み』 『産研論集』 24, 札幌大学, pp.47-54
- 杉岡秀紀(2007) 『大学と地域の地学連携によるまちづくりの一考察』 『同志社政策科学研究』 9(1), pp.77-78
- 大学のまち京都推進委員会編(2008) 『地域と大学連携のケーススタディ』 大学コンソーシアム京都, p.1.

- ❖ 투고일 : 2013.12.31
- ❖ 심사완료일 : 2014.02.02
- ❖ 게재확정일 : 2014.02.10

Abstract

大学の地域社会への参加とその限界

- 2000年代以降の西陣の事例を中心に -

金孝眞

この論文は、2000年代における大学と地域との連携の実態を京都の京町家再生運動の事例を通じて考察し、その矛盾や問題点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少子化による『大学全入時代』の到来を受け、日本政府による一連の大学改革は、大学による地域コミュニティへの貢献と大学と地域との連携がその主な方向性として取り上げられている。東京に続き、大学の集中している京都は、1990年代から大学と地域の連携が活発に行われた地域である。特に京都の歴史的・文化的な重要性のもと、地域文化と歴史を学ぶ必要が強調されており、大学と地域の連携において地域が主導的であると思われる。

しかし、実際の地域コミュニティで行われる大学と地域との連携は多様な矛盾と問題点を抱いており、特に大学による差別化の手段として使われることが少なくない。それは西陣の金貨ヶ辻伝統文化祭と京町家再生運動の事例でも例外ではなく、研究と学習中心の大学との連携は地域住民の望む協力の形とは違う場合が多い。結論として、大学と地域との連携では大学のランキングと位階、地域コミュニティの脈絡など、一般的なスローガンだけでは説明できない多様な状況が含まれており、実践の内容についてより具体的な考察が必要である。

Key Words : 大学改革(University Reform)、京都(Kyoto)、地域コミュニティ(Regional Community)、まちづくり(Townmaking)、京町家再生運動(Kyomachiya Revitalization Movements)